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74호 HYUNBULNEWS.COM 2026년 4월 15일(음력 2월 28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금강산관광 재개 염원 담아 한 걸음씩 조계종이 4월 8일 고성 DMZ박물관에서 통일기원 미륵대불이 있는 통일전망대까지 '금강산관광 재개 발원 금강산가는 길 걷기'를 개최했다. 동참자 400여 명은 '가고 싶다 금강산, 다시 가자 금강산'을 슬로건으로 약 40분간 접경 지역을 걸으며 남북 교류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다. 걷기에 앞서 조계종은 고성 DMZ박물관 대강당에서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남북 불교 교류 및 민간 차원의 협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고성=임은호 기자

불교 '3無 현상' 뚜렷…'생활 신행' 전환 필요

갤럽 '한국인의 종교' 조사
불자 58% "불경 읽지 않아"
"매일 기도한다" 불자는 7%

신중일 · 하성미 · 김내영 기자

기도하지 않고, 경전을 읽지 않으며, 사찰과 법회에도 방문·참여하지 않는 '3무(無) 불자'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수행의 종교'라고 자부하는 불교가 수행·신행의 밀도에서 이웃 종교보다 옅다는 게 확인된 것이어서 '생활 속 신행'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갤럽(이하 갤럽)은 3월 26일과 4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인의 종교:1983~2025'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1983년 시작돼 2025년까지 여섯 차례 진행돼 왔으며, 약 40년간 한국인의 종교 현황과 관련 인식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종교인구가 소폭 증가해 탈종교화 기류에 변화가 생겼으며 불교적으로 '3무 불자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제주 제외)의 만 19세 이상 7647명에게 현재 믿는 종교가 있는지 물은 결과 40%가 '있다', 60%는 '없다'고 답했다. 종교를 믿는 사람(이하 종교인)은 남성(31%)보다 여성(49%)이, 연령이 높을수록(20대 24%, 60대 이상 52%) 많았다.

종교인 비율은 2024년 37%에서 2025년 40%로 모처럼 반등했다. 지난 20년간 종교인 감소의 주된 원인은 청년층에 있었다는 게 갤럽의 분석이다. 갤럽은 "2004년의 20대 중에서는 45%가 종교를 믿었지만, 2014년 20대는 33%, 2022년 20대에서는 그 비율이 19%에 그쳤다"면서 "30대의 종교인 비율 역시 2004년 49%, 2014년 41%, 2022년 24%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젊은 교인 신규 유입 감소뿐 아니라 기존 교인 이탈도 전반적 교세 약화와 종교 인구 고령화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종교인구 비율은 개신교 18%, 불교 16%, 천주교 6%며, 연령별로 보면 불교인 비율은 20·30대 5% 내외, 40대 11%, 50대 19%, 60대 이상에서 27%로 고령층에 집중돼 있다. 지역적으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불교인 34%, 개신교인 8%로, 불교는 경남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다.

비종교인의 종교 호감도에서는 불교가 15%로 가장 높았다. 천주교는 11%, 개신교는 6%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비종교인 종교 호감도는 2004년부터 시간을 거듭하면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 2004년 당시 비종교인 종교 호감도에서 불교는 37%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그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대로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는 응답은 2004년 33%에서 2025년 67%로 급증했다.

종교인들의 종교활동 부문에서 불교는 긍정적인 지표를 보이지 못했다. 종교시설 방문 빈도를 묻는 질문에서 '일주일에 1회 이상 사찰에 방문한다'는 불자는 3%에 불과했다. 개신교인은 81%가 천주교인은 68%가 일주일에 1회 이상 교회와 성당에 방문했다. 이는 종교행사 금지 조치가 이뤄진 코로나19 펜데믹 이전 수준을 웃도는 것이어서 개신교, 천주교의 '집토끼 지키기' 전략이 일정 수준 이상 성공한 것으로 보여진다.

경전 독서율과 기도율 역시 처참한 수준이었다. '주 1회 이상 경전을 읽는다'는 불교인은 6%에 그쳤고, '전혀 읽지 않는다'는 불교인은 58%에 달했다. 반면 개신교인은 61%, 천주교인은 45%가 주 1회 이상 성경을 읽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까지 이뤄진 조사 중 최고 수치다.

매일 기도·기원율에서는 불교인의 7%만이 '하루 1회 이상 기도한다'고 답했다. 개신교인은 43%가, 천주교인은 39%가 매일 기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도와 기원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불교인은 35%나 됐지만, 개신교인과 천주교인은 8%정도였다.

'불교인의 신행 밀도 낮다'는 조사 결과는 타 기관에서 시행한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다. 실제 지난해 12월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2025년 종교인식조사: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활동'에서는 종교활동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개신교인은 77%, 가톨릭인은 55%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불교인의 35%만이 "중요하다(매우 중요 3%·중요한 편 32%)"라고 답했다. 불교인의 경우 15%는 "종교활동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해 3대 종교 중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한국리서치는 "이는 불교의 특징으로도 볼 수 있지만 불교 신자 간의 유대감이나 공동체가 약화되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일선 스님과 전문가들은 불교가 사찰을 넘어 가정과 일상으로 들어가야 함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동화사 율학승가대학원 율원장 해공 스님은 "비종교인 호감도가 높지만 정작 불자들의 신행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은 불교가 생활 속 깊숙이 파고들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이제 산중불교를 넘어 대중의 삶 속으로 찾아가는 '생활불교' '현장불교'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종교라는 틀을 벗어던지고, 현대적인 감각의 명상과 치유 콘텐츠를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불교의 지혜를 찾게 만드는 '문턱 낮은 포교'가 필요하다"며 "경전 독서(6%)나 기도 빈도(7%)가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이나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쉽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5면에 계속

조계종 종교편향특위 "가톨릭 대회 편향 우려"

종교편향특위·국회정각회 4월 2일, 간담회 개최해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보화 스님, 이하 종교편향특위)가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둘러싼 종교 편향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종교편향특위는 4월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국회정각회(회장 이헌승)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종교편향특위 위원장 보화 스님을 비롯해 위원 탄보·수경 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진성 스님이 참석했으며, 정각회에서는 이헌승 회장을 포함해 이광희, 김병주, 김영배, 박정하, 한지아, 조지연 의원 등이 자리했다.

이날 종교편향특위는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이 실질적으로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우회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법을 시행해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려면 시행령 및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한 만큼, 특정 종교에 편향된 위헌적 법령이 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3건의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 간 형평성에 위배되는 법안"이라며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지속적인 관심과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각회 의원들은 해당 법안의 종교 편향 문제점에 공감을 표했다. 정각회는 "소속 의원 58명이 불교 관련 현안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있다"며 "불교계가 제기한 종교 편향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면담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원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가족과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 구독·법보시로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보시공덕 중 으뜸은 법보시이며, 이는 자기 자신과 후대를 위해 선업을 쌓는 의미있는 일입니다.
비록 한 장의 신문이지만 부처님과 새로운 인연을 맺게 하는 공덕을 쌓는 포교 실천입니다.
현대불교신문 권선은 나의 이웃과 친지에게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뜻 깊은 포교불사입니다.
불기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로 희망의 연등을 밝히는 포교불사에 수희동참을 바랍니다.

월구독료 1만원 | 구독 및 법보시 문의 ☎ 02)2004-8214